

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		<h2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보 도 자 료</h2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color: red;">12월 31일(화) 조간 (12.30.12:00 이후 보도)</p>	
배 포 일	2019. 12. 30. / (총 6매)	담당부서	만성질환관리과
과 장	이 연 경	전 화	043-719-7380
담당자	박 수 정		043-719-7382

화상사고 예방 위해 안전수칙 준수 필수!

- ◇ 화상사고는 실내에서 대부분 발생(전체 화상사고의 약 90% 차지)
 - 4세 이하 소아(26.9%), 집(65.9%), 주로 일상생활 중(61.9%)에 많이 발생
 - 끓는 물, 수증기 등 뜨거운 물체·물질(40.4%)이 화상의 주요 원인
- ◇ 질병관리본부, 어린이 화상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준수 당부
 - 뜨거운 물건이 아이의 손에 닿지 않도록 주의, 화상 발생 시 올바른 응급처치 숙지 등

□ 질병관리본부(본부장 정은경)는 실내 활동 시간이 많아지는 겨울철을 맞아 2014-2018년 동안 화상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사례를 조사*하여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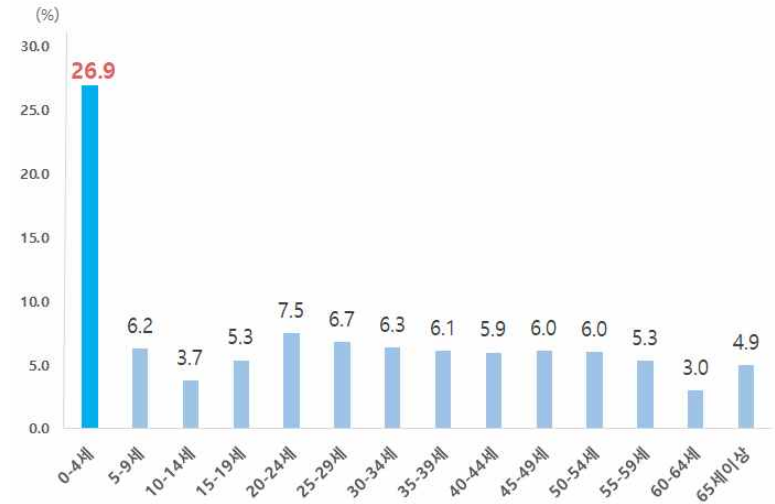
*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: 매년 23개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손상환자의 발생 원인을 비롯한 손상관련 심층자료를 전향적으로 수집하여 손상 통계 산출

○ 최근 5년 동안 화상으로 인해 23개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참여 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한 **전체 환자** 수는 31,542명으로 이 중 남자가 15,343명(48.6%), 여자가 16,199명(51.4%)으로 비슷하게 나타났다.

- (연령별) 4세 이하 소아에서 발생빈도(26.9%)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.
- (장소별) 실외(9.6%)보다는 실내(89.6%)에서 9배 이상 많이 발생했고, 세부장소로는 집(65.9%), 상업시설(19.2%) 순으로 나타났다.
- (활동별) 일상생활(61.9%), 업무(29.4%) 중에 주로 발생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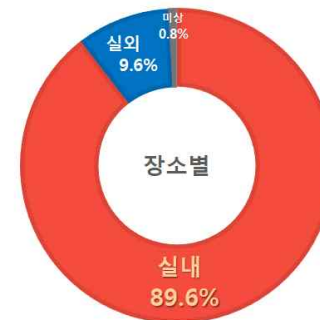
- (시기별) 주중보다는 주말에 많이 발생했고, 18시-24시(44.1%)에 발생빈도가 높았다.
- (원인별) 뜨거운 물체·물질(음식·음료 외의 뜨거운 액체 및 수증기 등의 기체, 40.4%), 음식·음료(29.7%)가 화상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했다.

[연령별 현황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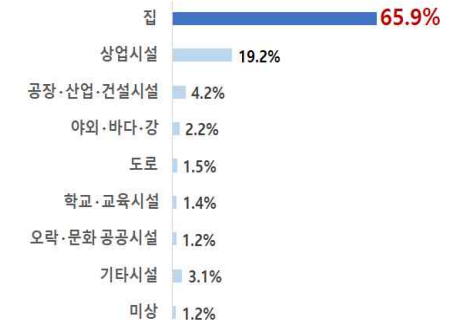
<연령별 화상사고 발생 현황, 2014-2018>

[장소별 현황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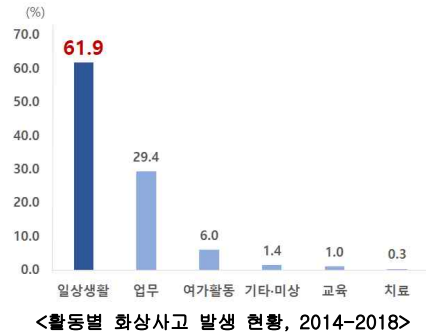
<장소별 화상사고 발생 현황, 2014-2018>

[세부장소별 현황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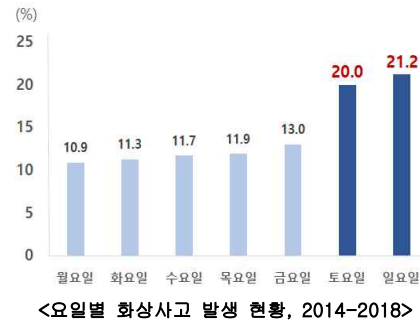


<세부장소별 화상사고 발생 현황, 2014-2018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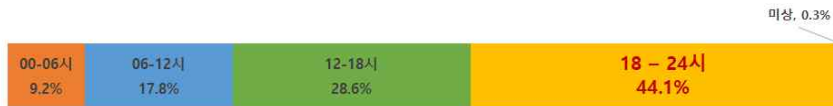
[활동별 현황]



[요일별 현황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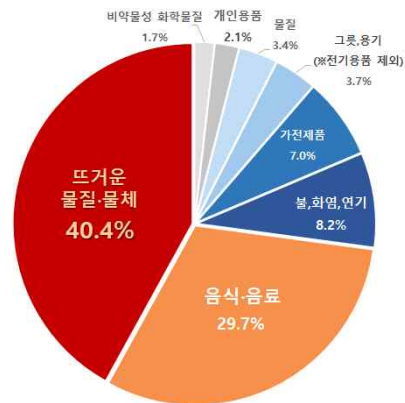


[시간별 현황]



<시간별 화상사고 발생 현황, 2014-2018>

[원인별 현황]



<원인별 화상사고 발생 현황, 2014-2018>

□ 질병관리본부는 화상사고가 특히 많이 발생하는 어린이의 화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을 안내했다.

<어린이 화상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>

- ▶ 뜨거운 물건은 아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둔다.
 - 뜨거운 주전자와 작동 중인 밥솥은 증기에 닿 수 있으므로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둔다.
 - 아이가 식탁보를 잡아당겨 식탁 위에 있던 음식이 쏟아질 수 있으므로 식탁보를 사용하지 않는다.
 - 요리할 때는 아이가 가까이 있지 않도록 한다.
 - 프라이팬 손잡이는 안쪽으로 돌려놓는다.
 - 다림질은 아이가 잠든 후에 한다.
 - 정수기의 온수는 잠금장치를 해 둔다.
- ▶ 어린 자녀를 목욕시키기 전에는 물의 온도를 확인한다.
- ▶ 아이를 안고 뜨거운 음식이나 차를 마시지 않는다.
- ▶ 안전장치가 있는 전열 기구를 사용한다.
- ▶ 화상을 입었을 때 응급처치 법을 익혀둔다.
- ▶ 뜨거운 음식은 식은 후에 먹도록 지도한다.
- ▶ 난로나 전열기 주변에 오래 있지 않는다.

○ 또한 화상이 발생했을 때는 화상 부위의 물집을 함부로 터트리면 감염 우려가 있고, 직접적으로 얼음 혹은 얼음물을 대는 것은 잘못된 상식이므로 올바른 응급처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.

<다양한 화상의 응급처치 안내>

▶ 열에 의한 화상

- 흐르는 차가운 물로 15분 정도 식힌다.
아동이 심하게 떨거나 저체온이 의심될 경우는 멈추도록 한다.
- 상처부위를 소독한 거즈로 덮는다.

▶ 전기에 의한 화상

- 전류를 차단한다.
단, 전기와 접촉된 사람을 직접 만지지 않는다(고무장갑, 막대기 등을 이용).
- 열에 의한 화상치료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치한다.
- 체온을 유지시키고 가까운 병원으로 간다.

▶ 화학약품에 의한 화상

- 가루형태인 경우 가루를 털어내고, 액체형태인 경우는 생리식염수로 물로 씻어낸다.
- 화학약품이 눈에 들어간 경우에는 응급처치를 받을 때까지 계속 물로 씻는다.

-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“어린이에게 발생하는 화상사고는 대부분 집안에서 어른들이 방심한 사이에서 많이 발생한다”고 전했다.

- 아울러 “평소 어른들이 화상사고 예방에 대한 안전수칙을 충분히 알아두고 어린이가 화상의 위험요인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”고 당부했다.

<붙임> 응급실 손상환자 심층조사 개요

붙임 1

응급실 손상환자 심층조사 개요

- (조사목적) 손상으로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를 조사하여 손상 발생 원인 및 위험요인 등을 파악함으로써 손상예방에 기여
- (조사대상)
 - 23개 참여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손상(외상+중독)환자 전수('15년 28만 건)
 - * '06년 5개소 → '07년 6개소 → '08~'09년 8개소 → '10년 20개소 → '15년 23개소
 - * 23개 기관(가나다순) : 가천대길병원,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, 경북대병원, 경상대병원,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, 동국대일산불교병원, 부산대병원, 분당서울대병원, 삼성서울병원, 서울대병원, 서울시보라매병원, 아주대병원, 연세대세브란스병원, 연세대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, 울산대병원, 이화의대목동병원, 인제대일산백병원, 전남대병원, 전북대병원, 제주대병원, 조선대병원, 충북대병원, 한림대의료원 강동성심병원
- (조사내용)
 - 손상의도성, 손상기전, 손상원인, 손상발생일시, 손상발생장소 및 세부장소, 손상유발물질, 자살위험요인, 자살시도 과거력, 추락장소의 특성, 보호장구 착용유무(안전벨트, 안전의자, 헬멧, 에어백 등), 손상예방교육 유무, 사망 일시 등 7개 영역 103개 문항
 - * 심층영역 교통사고(8개소), 마라·척추손상(5개소), 자살·중독·추락 및 낙상(6개소), 취학전 어린이손상(4개소)
 - * 통계청 비승인 자료
- (조사기간) 매년 상시 조사
- (조사방법) 응급의학과 의사의 응급실 내원 환자 면접조사 실시 및 조정자(코디네이터)의 의무기록 수집 → 원격 전산시스템 입력* (월 1회)
 - *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: <http://is.cdc.go.kr>
- (운영체계)
 - (질병관리본부)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
 - (국가손상조사감시사업 중앙지원단) 운영지원 및 자문, 코디네이터 교육
 - (23개 참여병원) 손상환자 자료수집 및 등록, 자료 질 관리